

소규모 공사도 전국 입찰 ... 지역업체 불만

함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2억 규모 체협관 리모델링

“지역 등록업체만 110곳 인데 ...” 입찰 일정 변경 요구

함평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이 2억원 규모의 전문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국 입찰을 진행,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등에 따르면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21일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직업체협관 리모델링(건축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면서 전국 입

찰을 시행했다.

추정금액 2억6000여만원짜리 실내 건축업 전문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전국으로 풀자, 지역업체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입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20조 1항 6호)과 시행규칙은 7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들로 제한할 수 있음에도,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업체를 외면했다는 것이 이들 업체들 주장이다.

이들은 전남지역 실내건축업 등록업체만 110군데에 이르는데, 지역 업체들이 충분히 납품 가능한 품목임에도 입찰 과정에서 대상업체를 전국으로 확대, 가뜰이나 위축된 지역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9일 마감 예정인 입찰일정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 공사로 추정금액 1억3400만원짜리 전기공사의 경우 지역제한입찰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건축 공사도 지역업체들로

제한해달라는 것이다.

지역업체들 사이에서는 전남도를 비롯, 지역자치단체들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상황에서 지역에 위치한 개발업체가 지역업체를 외면한 입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은 이와관련,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60일로 짧아서 시공능력을 감안, 우수업체들의 참여를 위해 전국 입찰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kwangju.co.kr

군산 근대역사거리 관광객 발길 이어져

근대 건축물 170채 보존 눈길

내일 박물관서 정책 세미나도

1899년 5월 개항 이후 일제 강점기 동안 미국 수탈의 창구 역할을 했던 군산은 ‘근대역사의 중심도시’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식민시대 흔적을 부수거나 지워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독특한 지역 관광자원으로 만든 ‘역발상’이 한몫을 했다는 평가도 많다.

일제강점기 때 중심이었던 현재 해망동 근대역사거리로 가면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군산 근대건축관)과 옛 일본 18은행 군산지점(군산 근대미술관), 옛 군산세관(관세 박물관) 등이 늘어서 있다.

현재 군산 시내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근대 건축물은 170채 가량이 남아 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사진)은 오는 29일 ‘개항 그리고 도시의 변화’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전국 근대역사 전문가들을 통해 군산과 부산, 인천, 목포 등 4개 근



대 개항도시들의 특징과 변화 과정,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세미나에서는 ▲1897년 목포 개항과 도시화 과정의 특징(목포대학교 도시문화연구원 최성환 교수) ▲개항장 도시부사의 변화와 복잡성(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차철욱 교수) ▲인천의 개항과 도시발전(인천시립김담선사박물관 연합초·학예연구원) ▲일제강점기 군산의 도시화 과정과 주민들의 삶(서울대학교 김태우 교수)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박물관 관계자는 “세미나를 계기로 군산의 근대역사 연구를 심화하는 데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지역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내장산 백암사무소

신청사 준공 했어요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신청사가 준공됐다. (사진) 27일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신청사는 민원실을 확장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충족하는 등 탐방객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열린 공원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최병기 소장은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고품격 탐방 서비스를 제공,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립공원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작은도서관 확대 조성키로

내달 22일까지 읍·면 11곳 주민 의견 수렴

순창군이 읍·면 작은도서관을 확대키로 하고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농촌 주민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순창군에 따르면 다음달 22일까지 지역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확대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조성 방향과 예산규모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은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시설에 165㎡내외의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1만 개 조성’에 따라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다. 시·군이 별다른 재정부담 없이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132개소의 작은도서관 중 순창에는 동계작은도서관 1곳만 들어서 있어 추가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15년 개관한 동계작은도서관 이용객도 연간 78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공간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어 마을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순창군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이 동네와 마을주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영근기자 jyg@

익산시 보건소, 29억 들여 증축·개보수

이달 말 시공 내년 4월 마무리

진료·질병 예방 서비스 확대

익산시가 신동에 있는 시 보건소를 증축하고 기존 건물을 개보수해 더 나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2001년에 지은 현 보건소는 진료 위주의 건물로 질병 예방 위주의 사업을 펼치기 어려웠다.

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 15억원 등 총 29억원을 들여 기존 3층 건물에 1층을 수직 증축하고 영양교실, 통합상담실, 다목적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1·2층에서는 일반진료, 건강검진, 예방



익산시 보건소 조감도

접종, 건강 상담, 민원처리 등의 보건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가 내년 4월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익산=유정영기자 yjy@

부안군 보안면 역사 산책로 인기

하트저수지·사계 절경 등

지역민들이 마을 역사와 관광 자원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를 발굴, 눈길을 끈다. 부안군 보안면 주민들은 ‘용기종기문화축진단’을 꾸리고 역사·문화 자원 발굴을 위한 현장답사 뿐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마을 이야기를 전해들은 뒤 지역 문화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할 수 있는 산책로로 연결했다.

산책로는 사랑하는 연인들의 마음을 가득 담고 있는 듯한 하트저수지,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절경, 이성계가 수련했다는 선계폭포, 유학의 실학자 반계선생 유희원 유적지, 거지들이 모여 살았던 도적굴, 금을 갠 자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땅재 등 보안면 일대를 하루



부안주민들이 걸어나며 직접 발굴한 산책로 절경. <부안군 제공>

온종일 둘러볼 수 있는 코스다. 추진단은 산책로 일대를 스토리텔링화하는 한편, 문화해설사를 통한 문화체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남악·부안=김민준기자 jun@

익스트림크루 멋진 댄스에 어깨 들썩~

내일 남원문화예술회관

익스트림크루의 ‘SHOW 해! 미스터 빅!’ 공연이 오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남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2017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익스트림크루 등 최고 수준의 댄스들의 멋진 댄스 실력을 감상할 수 있다. 총 4막으로 구성된 난버벌 댄스컬 공연으로 화려한 춤, 탄탄한 스토리 등을 선보이게 된다.

/남원=백선식기자 bs878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서·전원주택지

-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609평 여객선으로 30분 3200만원
- 순창군 인계면 갈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암들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방대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인전환 4억

투자·매도·교환

- 충성로5가 대지 1321㎡ 3층건물 320평 건물신속적합 60억
- 해남 신이면 5182㎡ 분할해서 전원주택적합 감정25억선 매도13억
- 광산구 장수동 9548㎡ 아울렛·청고·공장용 73억
- 함평 해보면 2중주거지 9605㎡ 아파트(임대) 적합 60억
- 월산동 라인아파트 부근 2중주거지 758㎡ 다가구용 적합 7억
- 금남로5가 대로변 상업지 2010㎡ 대형건물 적합 54억
- 함평읍 들머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5억

상가건물

- 풍암동 식당 상가주택 대지 211㎡ 건물 193㎡ 시설완비 6억42천
- 함평 2중주거지 3544㎡ 식당과 5층 모텔 등 30억
- 두암동 토지 315㎡ 건물 5층 749㎡ 의원 등 적합 11억
- 영암군 삼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시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평당210만원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가게 27평, 2층 원룸1, 투룸2, 3층 안집 27평 은행1억 매도 5억46천(임대가능)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천
- 장성 백암사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방임대중 2억4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선 교환가능 7억4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현전, 농성초교앞문앞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문의 010-3605-5000

공장부지 매매

평동 1차 산업단지 내
40,000㎡

- ▶매매가 상담 후 결정
- ▶분할 가능

H. 010-3162-4989
중앙공인중개사 대표 이장현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소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x 650(W) x 1250(H)
• BN 1000 : 940(L) x 650(W) x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98/9 Fax. 02-2029-6404
광주 : 광주광역시 광안구 학산로45길 45(창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